

experience
Life As Mission

142nd, Winter, 2021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인 터 서 브 프렌즈



기도, 일상의 선교를 위한 원동력 _ 공갈렙 선교사

일상에서 이웃을 축복하기 _ 송기태 부대표

인터서브 필드 _ 이집트 : 환대(款待) 의 나라



MERRY CHRISTMAS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 보세요.

contents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 04 기도, 일상의 선교를 위한 원동력 _ 공갈렙 선교사
- 08 일상에서 이웃을 축복하기 _ 송기태 부대표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 11 미션얼 패밀리 _ 이성형, 김지영 선교사
- 15 감사합니다 _ 장승기 이사, 정민영 이사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 18 환대^{款待}의 나라 _ 나그네한 선교사
- 24 미션얼 북 _ 샬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시 스테플러 심을 제거해주세요.

■ 인터서브 이슈

기도, 일상의 선교를 위한 원동력

공갈렘 선교사

인터서브코리아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달간 매일 메시지를 나누며 두 가지 각기 다른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각각 15일간 진행되었던 두 기도회는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고,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있었던 기도회는 '힌두인을 위한 15일 기도'입니다. 영국 인터서브 팀이 시작했지만, 현재는 다른 기독교 공동체와 연합하여 전 세계 기도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힌두인을 위한 기도회는 한국에서도 여러 선교단체, 교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인도와 네팔의 힌두교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힌두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국제 인터서브 공동체 내에서 진행된 'November Focus 15일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 핵심 가치 등을 하나씩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고 향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듣는 기도(Prayerful Listening)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인터서브코리아 기도 코디네이터로 섬기게 되어 15일 동안 매일의 기도문과 묵상 글을 작성하고 선교사와 이사들에게 전송하며, 11월 14일과 20일, 두 번의 온라인 줌 기도를 인도하였습니다. 기도 코디네이터가 되어 처음 진행했던 이 기도는 개인적으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인터서브 공동체 가족들이 나누는 묵상과 기도의 메시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과 사역의 원리를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삶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서브의 첫 번째 핵심가치 '하나님을 의지함(Dependence on God)', 입니다. 삶과 사역에서 원동력이 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공동체(Community),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Oneness in Christ), 파트너십(Partnership), 온전성(Integrity), 총체적(Wholistic), 종된 섬김(Servanthood) 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일상의 선교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성경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와 아랍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까이 자신의 삶을 나누며 섬겼던 지난 169년의 인터서브 역사는 전문인 몇 명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며 겸손히 섬겼던 결과였다는 것을 이번 기도 기간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도 델리에서 디슨(Dickson) 형제가 나에게 인터서브 공동체에 속해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순간에 대해 나누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인도인 인터서브 선교사 디슨은 수의사로서 농사일에 중요한 물소를 주로 치료하면서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도 출신이지만 타 문화권인 북인도에서 사역한 지 어언 20년이 넘었습니다. 디슨이 인터서브 소속이 된 지 몇 년 지

나지 않아 수의학 국제학회 일로 네덜란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업무무를 마친 후, 네덜란드 인터서브 지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일면식이 전혀 없는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두 명의 네덜란드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디슨이 사역과 두 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디슨은 어떻게 자신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터서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인도의 디슨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으며 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디슨은 매우 큰 감명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인터서브의 힘이자 정신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배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디슨 형제와의 대화는 '나 자신의 삶과 사역의 닳이 되는 기도, 특히 중보기도가 중요하구나!'라는 강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터서브코리아의 기도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은 저는 우리 공동체의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의지함의 표현이자, 힘과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 일상의 선교를 가능케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려 합니다. 가만히 인터서브 공동체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힘,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분의 주되심을 확인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매달 웹진을 통해 발송하는 열방을 위한 기도(SNAP, Serving Nations with A Prayer)를 바탕으로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실시간으로 연결된 필드 선교사들로부터 생생한 선교 현장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나라와 사람과 사역자를 위한 '올려드림의 기도'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들음의 기도' 또한 병행합니다. 디슨 형제의 고백처럼, 언젠가 우리 인터서브 기도 프렌즈와 동역자들이 올려드린 기도로 인해 삶과 사역에 힘을 얻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SNAP 기도회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 8시(한국시간)
인터서브코리아 줌 기도회를 합니다.
2022년 1월 24일(월) 저녁 8시

공동체 중보기도 팀

2022년 한 해 동안 열방과 인터서브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하실 중보기도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매달 기도회에 초대하고, 정기 기도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및 문의 : 아이리따 선교사,
031-778-7931/ aelitadream@gmail.com



PRAY

일상에서 이웃을 **축복**하기



송기태 부대표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선교적 삶을 사는 의지와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선교적 삶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BLES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데이빗 퍼거슨 목사가 개발했는데, 다섯 가지의 적용점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줍니다.

BLESS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의 약속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교회의 근간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BLESS 프로그램은 성도들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LESS의 다섯 약자로 시작하는 각 요소를 살펴 보겠습니다.

1. B : Begin with prayer (기도로 시작하기)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중에서 복음이 필요한 대상을 정하고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기도

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됩니다.

2. L : Listen (이야기 들어주기)

축복의 대상에 대해 기도하다 보면 전화하거나, 만날 기회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기회에 전화 혹은 만나서 대화하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집중합니다. 이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말을 많이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마음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고독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한 두 시간 동안 그 사람과 눈을 맞추고 집중하여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통하여 관계가 형성됩니다.

3. E : Stands for eat (함께 식사하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몇 번 정도 깊이 있게 들어주면 다음에는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해봅니다. 이 제안은 양쪽에서 누구든지 먼저 해도 괜찮은데, 상대방이 먼저 식사하자고 제안하면 더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식사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식사하면서 대화하면 훨씬 더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두 사람의 삶을 훨씬 더 깊게 나누게 됩니다.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더 의미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4. S : Stands for serve (필요를 돕기)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가볍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돕고 싶은 마음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한다면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이 준비되고 편안하게 느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하실 것이고, 또한 상대방의 마음도 열어 주셔서 도움을 요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대화, 식사 등의 모든 과정이 복음적이며, 구속적인 활동이란 사실을 기억하세요!

5. S : Stands for story (내 이야기 나누기)

이런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고,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왜 자신이 그런 변화를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순차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만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센스를 가지고 들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소그룹 모임에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지체들을 향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그룹 모임에서 주변의 믿지 않는 지인들을 향하여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과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BLESS 프로그램은 열방과 이웃에게 복이 되라는 아브라함 언약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의 소그룹 모임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는 것에서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주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의 고통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함께 음식을 드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된 우리도 BLESS 프로그램을 일상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을 나누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미션얼 Family

이성형, 김지영 선교사 은수, 은택, 은성

Missional Family

그리운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사역지 이동으로 인터서브를 떠나셨던 이성형, 김지영 선교사님께서 2021년 다시 인터서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앞으로 어떤 선교적 삶과 사역을 이어 가실지 반가운 얼굴을 만나봅니다!



Q 안녕하세요, 본인과 가족들을 소개해주세요!

살롬! 다시 인터서브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1994년에 9월 인터서브에 허입 되었습니다. 1995년 3월에 영국 런던에서 영어 훈련과 글라스고 신학교에서 선교 과목을 청강하고 1년 후 이집트로 파송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선교사 훈련과 문화, 교육 사역을 하며 10년을 지냈지만, 갑자기 입국 거부되어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애굽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셋을 입양하게 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에 15년 가량

자녀가 없던 저희는 4살이었던 은택이를 시작으로 다음 해에 4살 막내 은성이
를 마지막으로 10살이었던 큰아들 은수를 입양하여, 다섯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은수는 21살, 은택이는 18살, 은성은 16살이 되었습니다.

**Q.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다가 2011년 리비아로 사역지를 옮기시면서 인터서브를 사임
하게 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저희는 선교 초창기부터 북부 아프리카의 무슬림 사역, 복음의 불모지
에 비전을 주셔서 인터서브와 함께 리비아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리
비아의 문이 열리지 않아 이집트에서 사역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추방을 당
한 후, 한국에 들어와 약 6년 정도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 홀리 네이션스
와 협력하였고 세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입양 후 리비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는 분도, 한국 사람도 없는 리비아의 삶은 시작부터 녹록하지 않았지만, 주의
기적 같은 인도함도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리비아 정착 일 년 후, 이선교
사가 구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 문서와 관련하여 체포된 사역자와 친구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구금되어 두 달 동안 감옥살이하였고, 기적같이 석
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10개월 머문 후에 성경에서 멜리테
라고 불리는 섬나라 몰타에서 7년을 아랍과 리비아인 사역하다 올해 1월에 귀
국하여 부산의 기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Q. 리비아에서 사역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했던 일이 기억이 남
습니다. 혹시 그 일에 대해서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밤 11경에 이집트 친구를 앞세운 무장한 군인들의 연행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기독 문서와 관련하여 체포된 사역자와 친구라는 이유였습니다. 갑
작스럽게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섭리,
지켜 주심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
님께서서는 저에게 꿈과 몸의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감금된 후 3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짙고 긴 수염의 군복을 입은 사람이
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제가 갇혀 있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고 온 총을
둔탁한 소리를 내며 중앙에 놓여 있던 긴 책상 위에 내려 놓았습니다. 일종
의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
슬람은 참 좋은 종교라고 말하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그의 말
에 동의하며 한마디씩 제게 던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그저 잠잠

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저는 이슬람인이 되게 하지는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긴 수염의 근본주의자 리더가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울처럼 내 곁에 서서 저를 강권케 하시는 주께서 제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 가운데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간증하며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세계 곳곳에 계신 성도님과 교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두 달 만에 석방되어 고국과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Q. 현재 다시 한국에 오셔서 부산에서 무슬림 이주민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사역을 소개해 주세요.

아직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비자가 갱신되지 않는 것을 한국으로 들어가는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순종하여 귀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인을 통해 부산대 유학생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과 연결해주셨고, 한 학기를 외국인 유학생과 그 가정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섬기며 복음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리 원자력 대학원의 킹즈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나이지리아 학생을 지하철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유학생을 섬기는 믿음의 교수님과 직원, 학생들과도 연결되었고, 킹즈 캠퍼스의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무김치라는 한국에 온 무슬림을 섬기는 사역지들과의 연합을 통해 함



계 기도하며 리비아와 아랍 무슬림과의 연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협력과 연합을 통해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며 가고 있습니다.

Q. 다시 인터서브 공동체에 들어오시니 어떠세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시나요?

모든 것이 각자에게 때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지금이 또 하나님께서 인터서브와 이끄시는 때라 생각이 듭니다. 옛 전우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새로운 동지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 변천이 빠르고 더욱 복음의 전파가 힘든 시기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 든든합니다. 함께 격려하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복음의 길로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Q. 인터서브에 처음 허입하셨던 기준으로 보면 벌써 27년이 넘게 선교사로 살아가고 계신데요, 이렇게 지속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면 엄두도 못 낼 삶입니다.

Q. 두 분은 선교적 삶이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Q. 마지막으로 인터서브 공동체와 프렌즈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10년을 넘게 한결같이 인사위원장으로
섬겨 주셨던 **장승기 이사**님께서 이임을,
국제 인터서브 이사와 인터서브코리아의
실행 이사로 섬기신 **정민영 이사**님께서
이사직에서 은퇴하셨습니다.

두 분의 탁월한 혜안과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모습은
인터서브 성장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위원회를 떠나며...

인사위원장_장승기 이사



몽골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병원 개원하고 누가회 선교부를 섬기고 있던 시절, 당시 이사장님이셨던 박용준 이사님을 통해 인터서브에 연결되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약 10년 이상 인사위원으로 인터서브를 섬겨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터서브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힘써 왔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오히려 저 자신이 더 배우고 성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며 저 자신이 선교에 첫발을 디디고 선교사로서 지냈던 과정을 돌이켜 보며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많은 도전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주 업무는 새로운 선교사 후보자를 허입하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인터서브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보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겸손이 부족하지 않은지, 전문인이거나 목회자라는 신분과 관계 없이 신앙, 사역, 관계, 정치, 사회, 역사 등 다

양한 영역에서 균형감각을 갖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강력한 기동력과 영적인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부에 더 많은 선교경험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을 강조해왔습니다. 본부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질 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처음 보다는 본부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졌지만, 더 많은 선교사들이 본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터서브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 깊은 소통을 통해 필드에 있는 사역자들과 본부와의 관계가 더 끈끈한 공동체로 되기를, 새롭게 인터서브 가족이 되는 선교사들에게 주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나그네요, 예배자요, 사랑과 복음에 빛진 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조성하신 열방과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와 경배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인터서브가 온전히 쓰임 받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터서브 이사회를 떠나며...

국제 인터서브 이사, 인터서브코리아 실행 이사_정민영 이사



4년 전 선교사 직을 은퇴한 직후 조샘 대표의 추천으로 인터서브 국제 이사회를 섬기게 되었고, 조샘 대표와 전 이사장 이문식 목사의 요청으로 한국이사회도 겸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공적 직책을 맡지 않겠다는 다짐에 처음에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직이 전임사역은 아닌 데다, 내부자 관점이나 편견이 없는 사외이사로서 훈수꾼의 눈에 보이는 수를 제안하거나 특정사안에 각을 세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기여할 수 있겠다 싶어 한 팀만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인터서브가 지향하는 선교적 총체성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 한국을 떠날 때 생각했던 선교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깨닫는 선교 사이의 간극은 매우 큼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전보다 좀 더 철든 선교적 이해를 갖게 되었다면, 그것을 총체성이라 정의할 수 있지 싶습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과업지향적입니다. 과업지향성 자체가 잘못된 아니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정량적 과업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경적 가치와 정반대로 치닫는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서브도 그 오류로부터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추구하는 가치(정성적 총체성)와 현실(정량적 과업지향성)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위험을 인식하고 총체적 선교를 핵심가치로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그분의 방법으로 겸허히 동참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간 참여한 국제이사회와 한국이사회는 총체적 관점을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책임있고 균형잡힌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애쓰는 공동체의 여정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공헌하기보다 많은 깨우침과 배움을 얻고 떠납니다.

인터서브가 싫어졌거나 게을러져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 70이 되는 새해에는 이사 직분도 내려놓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겠다거나 인터서브와 등 돌리고 살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전히 인터서브의 친구로서 옆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다만, 칠순에 접어드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이 섬기는 걸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최종 책임지고 거버넌스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이사회에게 경험과 연륜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불연속적 혁신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의 폭이 넓고 속도가 빠른 시기에는 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이사회와 행정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인터서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걸맞은 일꾼들을 계속 부르시고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샬롬!



“웰컴 투 이집트. 인타 아이즈 티슈랍 쉐이?”

(이집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차 마실래요?)



최근 이집트도 워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집트의 문명과 성경의 모습들을 찾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집을 나섭니다.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오랜 시간 걷다 보면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름과 가족, 직업, 종교 등을 서로 묻다 보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차나 아랍식 커피를 권합니다. “인타 아이즈 티슈랍 쉐이?” 처음 보는 이방인에게 차나 커피를 권한다는 것은 깊은 환영을 의미합니다.

Egypt

환대_{歡待}의 나라

나그네한 선교사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 북동쪽에 위치한 문명 발생지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교통로입니다. 고대에는 주변의 많은 민족에서 정치, 사회적 난민이 된 이들이 이집트에 머물렀고, 중세에는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로 가는 이슬람 성지 순례객들이 잠시라도 들렀다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사람들은 이집트를 '세계의 어머니 도시'라고도 불렀고, '세계의 어머니' 역할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집트인은 여전히 국적을 불문하고 이방인들을 환영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외국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이들이 왜 이리도 이방인들에게 우호적일까요? 세계적인 관광국가로서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일까요? 물론 경제적 이유도 맞지만, 저는 성경 속의 애굽을 보며 그들의 환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자신이 살던 땅을 피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성경의 애굽은 나그네들을 위한

‘피난처’였습니다. 애굽은 많은 죄악으로 심판의 대상이 이었지만, 하나님은 앗수르와 바벨론과 다르게 애굽은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나의 백성 애굽’이라 말합니다(사 19:25). 이처럼 애굽이 하나님의 치유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혹시 나그네에 대한 환대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이들을 보며 “나그네를 사랑하되 자기 같이 사랑하라! (레 19:34)”는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집트를 무엇보다 ‘환대^{款待}의 나라’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나라

이집트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그리고 1,400년의 이슬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1,400년 가까이 이 땅에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집트를 두고 성경 배경이자 초대 기독교 역사 그리고 이슬람교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라 말하기도 합니다. 1억의 인구 중 9,000만이 무슬림인 이집트는 중동,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이슬람교 신도를 가진 나라이지만 국교는 이슬람교가 아닙니다. 1,000만의 콥틱 기독교 신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슬람교와 같이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습니다.

최근 들어 이집트 사회 안에 종교적 변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에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동, 서양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새로운 문화와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문화를 경험한 이들은 오랫동안 내려오던 신앙을 다시 고민하다 무신론자 내지는 회심자가 됩니다. 최근 아내의 아랍어 선생은 수업 중 몇 번 이슬람교와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물으며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보였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라 소개하고 무슬림이나 물으면 자신은 이제 무슬림이 아니라고 하는 이들을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 변화에 대한 수치를 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재 이집트 안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 삶과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해진 이야기일 뿐입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것처럼 많은 무슬림의 세계관과 인생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한 그들을 그분께 인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집트에서도 불고 있는 한류韓流

한류는 이제는 전 세계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역시 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 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젊은이의 '한국 사랑'을 보면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센터에 오는 젊은이들의 95% 이상은 여성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와 한국 드라마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으로의 유학을 꿈꾸며 또는 한국 기업 취직을 목표로 한국어를 배웁니다. 처음엔 히잡을 쓴 젊은 여성들이 한국 노래와 드라마를 보며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모든 이슬람의 여성들은 남성으로부터 억압받을 것이라는 저의 편견도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개방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성은 자유롭게 센터를 드나 들며 히잡을 벗어버리고 멋지게 머리를 꾸미곤 합니다.

또한, 이 한류의 흐름은 한국 사람인 저와 아내 그리고 동역자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한국어 수업 시간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언어와 이야기 통해 심어줄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선생과 학생 사이로 만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한 예로 몇달 전 아내는 이집트의 공영 방송에서 한국의 전통 음악을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아랍어 실력이



지만 이집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 몇 마디를 외우기 위해 아내는 며칠을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한류의 유행이 세계적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데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집트에 처음 발을 딛고 몇 개월 되지 않아 한국어 선생이 되었고, 이제 만 4년 째이 지나갑니다. 처음엔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 많은 젊은이를 만나고, 복음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국 사람과 이집트 사람, 이집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서로를 향한 환대(歡待)의 모습을 경험하고 실천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조의완의 “사막의 영성과 도시 철학”¹⁾ 한 구절을 기도문을 대신해 봅니다.

압바 아폴로는 형제들을 영접하는 일에 관해서 말하기를
방문하는 형제들에게 절하며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제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은 형제를 만날 때 당신의 주 하나님을 만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웠습니다.

형제들을 영접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가라고 하십시오.
롯은 천사들을 이런 방법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했다.²⁾



1) 조의완 저 “사막의 영성과 도시 철학” 194쪽



따뜻한 마음과 감사가 넘쳐나는 크리스마스,
친구가 필요한 4분의 선교사님의
‘재우’가 되어주세요.

“재우야 같이 걷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교사님의 의료와 연금 보험가입을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크리스마스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귀여운 코끼리 열쇠고리와 인터서브 텀블러를 드립니다.



3만원 펀딩 리워드
코끼리 열쇠고리 1개



5만원 펀딩 리워드
코끼리 열쇠고리 1개와 인터서브 텀블러

참여방법 : 인터서브 홈페이지 참고, 혹은 위의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문의 : 031-779-7931, interservekore@gmail.com

■ 미셔널 BOOK



살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부제 : 이슬람 세계를 향한 총체적 의료 선교를 바라며)

이대영 지음 / 죠이선교회 출판, 2020년

이대영 선교사는 인터서브 소속으로, Y국과 레바논에서 부인 서현정 선교사와 함께 의료 사역, 특히 레바논에서는 난민 의료 사역을 감당했다. 현재는 전주 예수병원 외과 과장이자 국제 진료소장으로 섬기고 있다.

“선교 신학자이자 의사인 저자는 신학과 현장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며 능숙하게 두 왕국, 즉 이슬람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다리 놓기를 시도한다. 특히 치유신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가 열망해야 할 살롬은 제국주의적 선교나 우월감에서 발현된 동정, 고급 서비스에 끼워 파는 부록과 같은 복음이 아니라 무슬림의 신학, 문화, 관습, 가치들을 공평히 대하는 데서 출발하는 살롬임을 깨닫게 한다.”

(윤성현 목사의 추천사 중에서)

성경의 살롬과 이슬람의 평화 : 저자는 기독교 선교의 목표를 살롬으로 규정하고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살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결과로 나타난 세상의 평화로운 상태이며,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미움, 상함, 슬픔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선교의 과정에서 기독교 선교의 궁극적 목표와 이슬람의 평화 개념을 비교하는 것은 필수적인 시작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슬람의 평화에 대한 세계관, 가치관을 파악하면 총체적인 의료 사역의 기초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질병 치유 관점 : 저자는 이슬람의 치유 관점을 분석합니다. 이는 무슬림들이 살롬을 방해하는 질병을 어떻게 치유해야 한다고 믿는가 하는 관점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선교학의 원리인 상황화를 시도할 때 상대방의 질병 치유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일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들은 신체적인 질병이 영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는데, 신체의 질병은 마음의 문제에서 야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알라가 자신의 마음을 고칠 때에만 질병을 치료해 준다고 믿는다.”(p.75).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는 성경적 복음 진리가 어떻게 무슬림들의 질병에 대한 신념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복음적 질병 치유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의료 선교, 되돌아보기: “세계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가운데 기독교 선교는 많은 도전을 맞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 이러한 최근 상황은 기독교 선교가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p.165).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최근에 아랍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AtoA(Arab to Arab)과 같은 의료 선교 운동을 소개한다. 선교사들이 아랍 의사들을 양성하고, 그 아랍 의사들이 또 다시 아랍 의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런 일을 진행할 때 선교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명예-수치 문화 honor and shame culture에서는 현지 의료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발전된 의료 기술들 앞에서 불안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p.170)는 팁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저자는 의료 선교 과정에서 현지 의사들을 포함한 현지인들과의 관계의 중요성과 의료 사역을 현지 교회와 함께 해야 함의 중요성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의료 선교팀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들을 지적하며 이와 함께 바람직한 의료 선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합니다.

인터서브의 미시오그래피^{missiography}: 결론적으로 인터서브를 이해하는 요소를 국제화, 교차문화, 총체성, 공동체, 섬김, 파트너십, 여성 사역자 등의 일곱 가지 렌즈로 제시한다. 이 복합적인 렌즈를 미시오그래피로 본다면, 결국 이 표준 줌 렌즈가 ‘인터서브의 프론티어 선교학’이라는 결정체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총체적 의료 선교의 추구: “의료 선교는 현지 보건 의료 시스템에 복음의 가치로 변혁을 이루어 내기 위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의료 선교가 육체적 또는 영적 치유 중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복음의 총체성을 이해하지 못한 논쟁이다”(p.179). 의료 선교는 지난 200년간의 개신교 선교에서 교육 선교와 함께 선교의 두 기둥을 형성했던 강력한 선교의 도구였습니다. 이제 의료 선교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 하시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신 것 같이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의료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 살롬이 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卍

송기태 부대표



MERRY CHRISTMAS!



Christmas Greetings!

아시아와 이랍의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온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돕는 일!
1852년, 인터서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2021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과의 동역이 없었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Life As Mission,
삶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프렌즈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Merry Christmas!
Blessings upon you and your families.

감사합니다.

2021.12.01
조샘 대표



인터서브 프렌즈

통권 142호
2021 Winter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중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21년 겨울호 통권 142호

발행인 조샘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21. 12. 10.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INTERSERVE KOREA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2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